

호남의 藝鄕다움에 대한 自他の 인식 방법

조 상 현*

- I. 머리말
- II. 1980년대 이전 호남 담론의 전개
 - 1. 호남에 대한 외부의 타자화 담론
 - 2. 호남 내부의 대응과 자기 인식
- III. 호남 담론의 전환 : 5·18과 예향
- IV. 호남의 예향다움에 대한 인식 방법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호남을 대표하는 3향 가운데 하나인 ‘藝鄕’에 대한 것으로, ‘무엇이 호남을 예향답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0년 5·18 이후 호남은 빨갱이나 시위 등과 같은 단어로 설명되었다. 이때 5·18이 언급될수록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은 호남지역의 이미지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일부 지역 경제인이었으며, 다른 쪽은 전두환 정권이었다.

1982년을 전후하여 호남 내외에서 호남을 예향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발견된다. 왜 호남이 예향으로 불렸는가? 호남이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 전남대학교 인문역량강화(CORE)사업단 학술연구교수 / sahakdo@jnu.ac.kr

남중화나 판소리 같은 몇몇 예술 분야를 예향의 이유로 말하기도 하지만, 한 쪽에서는 예술을 향유하는 어린 아이와 식모 그리고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다방과 각종 접객업소의 모습에서 호남이 타 지역보다 좀 더 예향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호남 예향론’은 호남 예술만이 가진 역사·문화적 위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비예술적인 측면이 의도적으로 강조된 정치적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호남 상징, 호남예향론, 예향, 의향, 5·18, 1980년대, 지역 이미지

I. 머리말

대한민국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 다양한 행정구역이 있다. 서울특별시나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같은 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지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공식 지명 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식의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고 있다. 흔히 별칭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인데, 가장 일반적인 별칭은 바로 호남¹⁾이나 영남·호서 같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 각 지역을 이해하기도 한다. 상징이라 함은 나무나 새, 꽃 같은 것을 지역 상징물로 정하는 원초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수준부터²⁾ 지역의 역사·문화를 함축적으로 담아 놓은 고차원적 정체성 담론까지 그 수준의 편차도 크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 혹은 국가의 이미지는 무미건조한 이름을 대신하여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기도 한다. 브라질이나 쿠바라는 단순한 이름보다 ‘삼바·축구의 나라’, ‘시가·재즈의 나라’ 같은 이미지가 오히려 더 친근하며, 이러한 상징화 작업은 국가나 도시에겐 문화·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제는 지역 이미지를 하나의 브랜드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竹鄕 담양’, ‘茶鄕 보성’이라 부르는 것이라던가, 안동을 ‘정신문화수도’라고 부르는 것이 그 예이다. ‘호남’ 같은 별칭은 전근대 시기 자연적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름인 반면에,³⁾ 소위 지역을 상징하는 ‘鄕號’의 경우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근현대 들어 적극적으로 만들어

1) 본고에서 다루는 호남의 범위는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를 아우르는 지역이지만 간혹 그 지역적 범위가 전남 혹은 광주로 한정되기도 할 것이다. 이는 호남을 대표하는 거대 도시 광주가 호남의 담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슈 독점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까치와 비둘기를 자기 고장의 상징새로 지정한 도시는 무려 65.4%에 달했고, 상징나무는 경우 무려 43.6%의 도시가 은행나무 하나에 몰렸다. 상징꽃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가 개나리, 철쭉, 장미, 목련을 선정했다(황홍섭, 「한국 도시 상징의 분석 -시가, 시조, 시목, 시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3-2, 1997, 241~247쪽).

3) 조상현, 「전라도 별칭 ‘호남’(湖南)의 연원(淵源)」, 『韓國思想과 文化』91, 2018.

지고 호명되고 있다. 호남은 특히 이 같은 향호가 많은 곳이다. 의향·예향·미향 등 호남 3향 이미지는 나름대로 잘 자리 잡혀 있다.

호남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담론의 경우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호남 내·외의 거대한 두 집단이 마치 서로 힘을 겨루듯 담론 쟁탈전을 벌이기도 한다. 외부의 시각으로 호남에 투사되었던 것 중에는 실제 ‘호남’을 잘 표상화한 것도 있겠지만, ‘反 호남’적인 것들도 존재하였다. 간혹 그것이 진짜 호남의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어느 순간 호남의 이미지로 굳어져 버리기도 한다.

본고는 어느 순간 호남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의 일환으로 ‘예향’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왜 호남이 예향인가’의 질문에 대해 많은 답이 있어왔다. 그리고 그 답은 ‘왜 호남이 의향인가’의 경우와 너무도 흡사하게, 단지 ‘예전부터 예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⁴⁾ 필자는 이 같은 대답에 대한 동의여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마치 호남 의향론이 어느 순간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 담론의 지위를 획득하였듯,⁵⁾ 호남 예향론 역시 언제부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 한다.⁶⁾

4) 지역에 따라 예향의 근거로 내세우는 분야는 약간씩 다르다. 전주의 경우 홈페이지에 ‘조선의 문화예술을 선도한 예향’이라면서 ‘조선후기 대사습놀이가 열렸던 소리의 고장’이며, 음식문화가 발전한 맛의 고장’과 ‘한지의 本家이며, 완판본이라는 이름으로 한양과 함께 출판문화를 주도했던 기록문화의 도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는 ‘한국화의 허백련, 서양화의 오지호, 판소리의 임방울, 서정시인 박용철 등 우수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해서 예향이라 일컬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에도 광주광역시청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추가로 ‘광주 비엔날레, 다자인 비엔날레 등 세계적 문화행사 개최지. 가사문학, 고려청자, 남종화, 판소리 등 풍부한 전통문화’ 등을 예향의 이유로 삼고 있다.

5) 조상현, 「호남 상징으로서 義鄉論의 전개와 추이」, 『韓國思想과 文化』50, 2009.

6) 호남 예향론의 형성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정근식(「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30, 1996)과 池秉文·金哲弘(「지방사회운동으로서의 광주 5월 운동」, 『韓國政治學會報』34-4, 2001) 등의 논문이 있다. 이들은 호남 예향론을 지역 상징정치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민주도시’라는 지역 이미지와의 갈등 및 경쟁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5·18을 ‘민주화’로 보지 않고 ‘과격’의 이미지로 소비하던 외부의 시각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형성된 것이

또한 당시 호남 내외부에서 호남을 예향답다고 인식하는 계기는 무엇인지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예향론이 부각되기 전, 1980년대 이전 호남 내부와 비호남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담론 싸움을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려 한다. III장에서는 1980년 이후 5·18 관련 담론의 확장과 이에 대한 안티 담론의 성격으로 예향론이 등장하는 부분까지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1980년대 신문과 잡지를 통해 당시 호남을 예향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예향의 근거로 내세웠던, 즉 ‘호남의 예향다움’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 하려 한다.

II. 1980년대 이전 호남 담론의 전개

1. 호남에 대한 외부의 타자화 담론

해방 이후 호남에 대한 담론의 시작은 호남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⁷⁾은 호남은 물론 해방 이후 한국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이 사건이 ‘공산계열과 일부 극우분자들의 책동으로 국방부 일부 육군부대가 주동’이 되어 전남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이라고 규정하였다.⁸⁾ 또한 일부 군대만이 아닌 경찰과 행정기관, 학생 및 다양한 계층의 인원이

바로 호남 예향론이라는 것이다.

7) ‘여수순천10·19사건’은 그 성격의 정의에 따라 ‘여순반란’, ‘여순봉기’, ‘여순항쟁’, ‘여순사건’, ‘여수14연대반란사건’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김득중,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역사연구』7, 2006, 149~152쪽). 국사 교과서의 경우 1996년 제6차 교육과정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 중에 있다.

8) 『동아일보』 1948년 10월 22일 <一部陸軍部隊叛亂騷擾 共產系列과 極右分子도 策動>

이 ‘폭동’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⁹⁾ 전남 더 나아가 호남을 ‘빨갱이’ 또는 ‘빨갱이 지역’으로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정권 유지에 동원하였다.

6·25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전라도 비하-차별이 본격적으로 논란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 당시 유행했던 지역 비하의 방식은 전라도를 하와이에 비유하는 것이었다.

A-1. 民國黨의 趙永珪君 揶揄와 平易한 말로서 定評있는 一場의 詰難質問에서 ... 「나는 全南出身인데 요즈음 全羅道 사람을 보고 「하와이」라고 부릅디다」고 爆笑를 일으켜놓고서 ...¹⁰⁾

-2. 「자유결혼을 방해하는 자에게 고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애인(모니카 다방레지)과 함께 정사(?)를 하려고 권총을 난사한 청년. 유서의 사연 인즉 「짝사랑」의 비연(悲戀)이 아니라 양인(兩人)은 물론 양편부모까지 「결혼」에 합의를 보아 약혼식 날자까지 잡았다가 돌연 약혼일 며칠 앞두고 여자측 부모가 반대한데서 빚어진 비극이었다고. 그런데 그 결혼 반대를 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하와이(?전라도)」남자라는 것이었다나... 다른 이유가 또 있다면 몰라도 그러한 지방색 농후한 인간차별이 원인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젊은이들의 심사였이라 ...¹¹⁾

A-1을 보면 1954년에 이미 전남출신 조영규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중 요즘 자신을 하와이로 부르는 일이 있다고 비웃고 있다. 그리고 A-2에서는, 1956년 사랑하는 여인과의 약혼식을 앞둔 청년이 유서를 써두고 권총을 쏘아 자살을 시도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행복했던 커플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여자 부모님이 갑자기 ‘하와이’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었다.

결국 전라도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필화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1959

9) 『동아일보』 1948년 10월 30일 <主作戰은 完了 湖南司令部서 發表>

10) 『경향신문』 1954년 8월 28일 <廉恥없어 못할 國政監査>

11) 『경향신문』 1956년 1월 20일 <돌보기>

년 시인 조영암이 잡지 『야화』 7월호에 ‘하와이 근성 시비’라고 글을 쓴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전라도를 ‘개땅쇠’,¹²⁾ ‘간혹과 배신의 표상’이라는 이미지로 규정하였으며, 전라도 출신은 친구에서 제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조영암의 글은 1950년대 들어 퍼지던 호남에 대한 왜곡된 거부감이 개인의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대중 잡지를 통해 활자화 된 것이고, 이로 인해 당시 호남에 대한 타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다. 소위 氣質論 혹은 人性論이라고 부르는 주장을 근거로 한 지역 비하 발언들이 공격 담론의 장으로 뒤흔쳐나온 것이다.¹³⁾

은연중에 퍼져있는 특정 지방에 대한 편견이나 중앙과 지방에 대한 편견의 골은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대중매체를 통해 더 깊어지고 고착화되어 갔다.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 파급력이 큰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에서도 지방 사람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사투리와 배역의 문제였다.

어느 한 지역의 언어가 단순히 중앙-지방이라는 이유로 우월하거나 미천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적어도 19세기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¹⁴⁾ 그런데 표준어를 만들고 다른 방언을 비표준어로 규정하면서부터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의 격이 벌어졌다. 표준어는 조선어 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는 규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12) 개땅쇠란 ‘개땅(갯벌)에서 사는 사람들’, 즉 ‘못쓰는 땅에 사는 천한 놈’이라는 의미로서, 지배권력에 의해서 비하적인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박영정, 「광주, 전남지역의 마당굿운동에 대하여」, 『전라도 마당굿 대본집』, 들불, 1989, 8~33쪽; 박미선, 「호남문화론」에 대한 제 논의와 전망」, 『호남문화연구』31, 2002, 228쪽 재인용).

13) 기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 道의 인성을 본질화하려는 시도로, 조선시대 이증환의 『택리지』 등에 등장한 이후 그 생명력은 국가가 바뀌고 정치체제가 바뀌고 천지가 개벽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14) 최유준, 「대중음악과 호남 사투리의 감성 정치」, 『호남문화연구』49, 2011, 524~525쪽.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특정 지역(서울)의 언어’와 ‘특정 조건(교양 있는)을 갖춘 사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말’과 ‘교양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문화적으로도 ‘고급’이라는 주도권을 서울이 차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⁵⁾ 국립국어원도 이와 관련해 ‘교양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표준어를 삼은 이유는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¹⁶⁾

- 13일 KBS에 대한 國會文公委감사에서 放送에 있어서의 표준어 사용문제로 論難을 벌인 內容을 보면, … ▲李道先의원(보충질의)=나는 全羅道 출신인데 TV드라마나 방송극을 보면 전라도 사람은 모두 식모 등으로 나오고 있으며 연기자의 全羅道 사투리도 엉터리다. 이를 시정해주기 바란다 …¹⁷⁾
- 수십 년간 드라마를 장식해 온 직업과 사투리도 문제. 가정부, 운전사, 청소부 등으로 나오는 출연자의 말은 으레 충청·전라·경상도 등지의 원색적 사투리가 주종. 상류층을 묘사할 때는 고상한 표현과 표준말을 쓰지만 시장의 서민층을 무대로 한 드라마에서는 무조건 욕설이 난무하고 지방사투리를 범벅으로 늘어놓은 것은 말씨와 계층을 정형화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¹⁸⁾

특히 과거 TV 드라마에서는 전라·충청·경상 등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가정부 등 하류층 사람으로만 묘사했으며, 그들의 삶에 진지한 모습들을 다루기보다는 단지 극의 양념적 요소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만 묘사하였다.¹⁹⁾ 그리고 그 주된 놀림의 대상은 전라도 출신이 도맡아 왔다.²⁰⁾

15) 송종현, 「지역방송의 사투리 사용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11-3, 2011, 126~127쪽.

16) 국립국어원 누리집-사전·국어지식-표준어 규정 참조

17) 『경향신문』 1971년 11월 15일 <劇中사투리 말썽>

18) 『동아일보』 1982년 12월 8일 <TV劇엔 예절도 없나…>

호남 사람에 대한 부정적 모습이 방송에 반복 노출되면서 현실에서 호남 사람과 접촉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 같은 간접 체험한 듯한 효과를 가져왔다. 대중매체가 국민들 기억 속에 지역 고정 관념의 정보를 가져다주는 정보원이 되어 버린 것이다.²¹⁾

마치 일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피부색을 통해 ‘우월한’ 한국인과 ‘열등한’ 동남아, 아프리카 노동자를 구분 짓듯. 혹은 연변 사투리로 대한민국 국민과 ‘예비범죄자’ 조선족을 규정짓듯. 그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표준 어인지 사투리인지를 통해 세련되고 품격 있는 상류층(중앙)과 촌스럽고 천박한 하층민(지방)을 색출했던 것이다.

호남 사람에 대한 부정적 믿음의 실체는 자기가 실제 경험한 사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누구의 누구’가 전파한 간접 경험일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TV속 장면을 자기의 경험인 마냥 혼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인이 실제 경험했는가의 여부는 이제 의미가 없다. 표준어를 쓰면서 교상하게 사는 교양 있는 서울 사람은 사투리를 쓰면서 허드렛일을 하는 교양 없는 지방사람, 특히 호남 사람에 대해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굳이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전라도를 ‘하층민’이나 ‘간사함의 표상’ 등으로 정의해 버리고, 전라도가 아닌 자신들은 ‘하층민이 아니며 간사하지 않은’ 존재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호남이 대한민국의 주류에서 배제됨으로써 기존의 부정적 담론은 더욱 확산돼 갔다. 호남 사람이 스스로 만들었고 자초한 이미지라고 보기에는 억울하고 곤란한,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의 ‘호남

19) 鄭鉉錫, 「TV드라마에 나타난 지방인 묘사에 관한 연구 -KBS 2TV ‘당추동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90, 4쪽.

20) 2001년도의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당시 방송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23편의 드라마를 대상으로 사투리 사용을 조사한 결과 사투리 사용 인물의 76%가 전라도이고 경상도와 북한은 각각 12% 순으로, 전라도 사투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태, 「TV 드라마 사투리 사용실태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5, 42~43쪽).

21) 鄭鉉錫, 앞의 논문, 16쪽.

사람은 옛날부터 원래 그랬어'라는 선입견 속에 간혀 버린 호남은 '낙후된' '천박한 하층민의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회자되고 만다.

2. 호남 내부의 대응과 자기 인식

지금껏 호남 담론 형성은 주로 국가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호남을 호명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 역시 호남 밖의 他者들이었다. 그들의 호남 인식 방법은 호남을 타자화 시키는 지극히 배타적 방식이었다. 호남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마치 주홍글씨 같은 낙인으로 호남을 괴롭혔다. 이후의 모든 행위는 그 담론 속에 억지로 짜 맞춰지고, 이를 통해 또 다시 주홍글씨를 더 진하고 많이 찍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호남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더 이상 낙인을 찍지 못하게 낙인찍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혹은 낙인이 찍히지 않게 낙인찍힌 사람이 스스로 바뀌는 것이었다. 전자의 가장 좋은 예로 호남 향우회를 꼽을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호남문화에 대한 탐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조직된 향우회를 살펴보자.

서울의 인구는 1955년 157만 명, 1960년 242만 명, 1964년 342만 명, 1968년 433만 명 등 4년마다 100만 명씩 증가한다. 이후로도 1970년 543만 명, 1974년 654만 명, 1977년 752만 명, 1980년 836만 명, 1984년 950만 명 등 3~4년에 100만 명이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다.²²⁾

1960~1970년대 서울 유입 인구의 출신지를 보면 전라도 출신이 약 29%로 가장 많았다.²³⁾ 하지만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이 맨몸으로 상경한 이농

22)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 한눈에 보는 서울 - 서울의 인구사(<http://stat.seoul.go.kr>)

23) 1970년 자료의 경우 서울로 들어온 약 51만 명 가운데 호남지역 출신이 29%였고, 영남 출신은 24.1%였다(尹貞薰, 「人口移動을 통한 우리나라의 都市化 過程」, 『社會學研究』 10, 1972, 139~140쪽). 1970~1997년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 순 전입인구

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이었던 지게꾼, 녀마 주이, 버스 차장, 식모, 공돌이 등 이었다. 도시 하층민으로 고착되어 가던 이주민들의 도시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 바로 향우회 모임이다.²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향우회로는 1955년 창설된 ‘在京全南鄕友會’(1996년 재경광주전남향우회로 변경)가 있었다.²⁵⁾ 이들은 정서적·경제적·정치적으로 ‘호남 대 비호남’의 구조가 강요되는 현실 속에서 호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⁶⁾

다음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지역 차별에 맞서 호남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호남지역에서 지역학으로서의 ‘호남문화론’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도 이 즈음이다.²⁷⁾ 1963년 전남대학교에 호남지방 문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호남문화연구소’가 설립된다.²⁸⁾

1964년에 연구소 창립기념 ‘제1회 호남문화대강연회’를 개최하는데, 당시 소장이었던 이을호는 ‘호남문화에 대한 개관’, 이병도는 ‘역사상으로 본 호남’, 박종홍은 ‘사상사적으로 본 호남’, 정익섭은 ‘호남지방의 가사’, 김원룡은 ‘고고학상으로 본 호남고대문화’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을호, 이병도, 박종홍 등 3주제는 1964년 9월 발간된 『호남문화연구』2집에 실리게

약 800만 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37.6%이고, 영남 출신이 28.4%를 차지하였다(정형호, 「20세기 서울 지역 도시공동체의 특징과 변모 양상」, 『실천민속학연구』17, 2011, 303쪽).

24) 박성윤, 「도시 생활의 적응 기제로서의 향우회에 관한 연구 -재경고흥군향우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1, 2쪽.

25) 在京全南鄕友會, 「本會沿革概要」, 『94在京全南鄕友會誌』, 1994, 218쪽.

26) 호남향우회에 대해서는 조상현(「1980년대 이전 호남향우회의 성격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15-2, 2012)의 글 참조

27) “한편 호남 지역에서도 ‘향토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의 궤적이 발견된다. 50년대와 60년대에 간행된 『전라남도사』와 『전라남도지』와 같은 것들은 그 초기 성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강래, 「호남학의 지형과 지향」, 『호남학의 성과와 전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6, 18쪽).

28) 전남대학교 부설 호남문화연구소, 「취보 - 전남대학교 부설 호남문화연구소 소개」, 『호남문화연구』1, 1963, 109~110쪽.

된다.²⁹⁾ 이것이 지역, 역사, 문학, 고고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호남’을 조망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³⁰⁾

물론 1960년대 들어 國學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호남만은 아니었다. 당시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소들을 설립하고 국학 연구에 나서기 시작했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學術文化 분야에 나타난 가장 강한 바람은 한국의 再發見 혹은 再評價로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움직임이었다. …… 지금 국내의 대부분의 大學은 경쟁하듯 民族學 國學 東洋學의 연구를 목표로 하는 학술 연구소를 하나씩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研究論文集을 발간하고 있고 그 내용은 한국의 歷史文化가 중심이다. 서울大學의 東亞文化研究所, 高大的 亞細亞問題研究所, 延世大的 東方學研究所, 梨大的 韓國文化研究院, 淑大的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釜山大的 韓日文化研究所, 全南大的 湖南文化研究所 등 모두 한국을 再發見하려는 大學의 學術연구기관들이다. 그들은 거의가 1960년대에 와서 나타났다.³¹⁾

위 연구소들은 대부분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에 설립된 것들이다. 그 이름들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단위의 역사·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곳도 있고, 좁게는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연구를 목표로 하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지역의 이름을 걸고 지역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소는 오직 호남문화연구소 하나였다.³²⁾

29) 1964년 발행된 『호남문화연구』2집에는 「호남문화의 개론 -하나의 서론으로서-」(이을호), 「지리 역사상으로 본 호남」(이병도), 「사상사적으로 본 호남」(박종홍) 등 호남 문화의 전반적인 개괄에 대한 논문이 실렸다.

30) 최대우·백형주, 「대학연구소」, 『호남학의 성과와 전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6, 291쪽.

31) 『경향신문』 1967년 3월 22일 <되찾은 固有文化>

32) 이런 모습은 같은 해 11월 ‘국립대학교설치령개정건의’를 통해 각 지역 국립대에 설치기로 한 연구소 명칭에서도 드러난다. 서울대는 열대의학·열대농업·무역연구소, 경북대 생산기술, 부산대 기업경영, 전북대 한지연구소 등이 들어섰으며, 충남대 동아문화, 춘천농대 대두연구소, 제주대 남방수산기술연구소 등이 설립됐다. 오직

1960년대까지 국가단위의 문화, 즉 민족문화, 신라문화, 백제문화 등의 존재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 지방 혹은 지역 단위의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지역학 연구소인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가 1978년 ‘영남문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를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고, 그다음으로 호서문화연구소가 1980년 정도에 설립되었다.³³⁾ 그만큼 1963년의 호남문화연구소 설립과 1964년의 호남문화에 대한 논의는 선구적이라고 할만하다.

또한 향토사·지방사 연구가 본격화 되는데, 1972년 창립된 장성의 ‘향토문화개발협의회(이하 향문화)’가 가장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향문화는 창립 이듬해인 1973년부터 『鄕土文化』와 『文鄕』이라는 연구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으며, 1975년부터는 정기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장성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인 ‘유림정신’과 ‘선비정신’이 강조되었다.³⁴⁾

장성의 향문화가 이처럼 선진적인 향토사 연구를 진행하게 된 데에는 널리 퍼져있던 장성에 대한 비하와 차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³⁵⁾ 장성의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장성은 지역 비하에 대한 분노의 감성을 오히려 ‘장성문화’를 통해 자부심으로 승화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³⁶⁾ 이는 호남 비하에 대한 분노의

전남대의 호남문화연구소만이 지역학 연구를 목표로 설립 승인을 받은 곳이었다(『매일경제신문』 1967년 11월 29일 <11個國立大學校에 各研究所 신설키로>).

33) 지방사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韓國史研究會에서 편집·발행한 『韓國地方史研究의 現況과 課題』(경인문화사, 2000) 참조

34) 『문향』은 1973년 『향문화보』라는 이름으로 1·2호가 발간되었으나, 1975년 제3호부터 『문향』으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1986년 55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김병인, 「지역전통의 정립과 변용」,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경인문화사, 2004, 171쪽).

35) 장성·곡성·보성 등 3성과 창평·남평·함평 등 3평을 ‘3성 3평’이라 부르는데, 흔히 ‘살기 힘들고 인심이 사나운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비합리적인 용어이다. 하지만 ‘3성 3평’ 지역은 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다루기 힘들었다고 평가된 지역들을 약칭한 것이다(정근식, 「지역 정체성, 신분투쟁 그리고 전쟁기억」,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경인문화사, 2004, 210쪽).

감성을 ‘호남 문화’를 통해 자부심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이 지역 움직임과 같은 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다.

III. 호남 담론의 전환 : 5·18과 예향

1980년 5월 18일은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날짜이자 사건이다. 하지만 본고는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5.18’의 원인이나 경과, 의미 등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5·18의 성격을 두고 국가 권력을 장악한 진압 책임자들의 호남 담론과 피해자의 담론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당시 국가권력이 5.18을 통해 호남을 규정하던 방식은 ‘광주사태’ 혹은 ‘폭도’³⁷⁾ 등의 단어로 상징된다. 계엄군은 그 당시 광주의 ‘심각 사태’는 폭도들에 의한 것임을 전국에 선포하였다.³⁸⁾ 국가에 의해 통제받던 신문·방송 등은 광주의 소요사태 배후 세력으로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 및 깡패 등 현실불만 세력이 있으며, 그들이 광주에 내려가 사실 무근의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리는데 소요의 원인이 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그 유언

36) 김병인, 앞의 논문, 2004, 172~176쪽.

37)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서의 시위 참가 세력이 군부에 의해 폭도로 호명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김희송(「5·18항쟁 시기 군부의 5·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13, 2013)의 논문을 참조

38)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21일 “지난 18일 수백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발전된 것은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깡패 등 불량배들로서 급기야는 예비군 및 경찰의 무기와 폭약을 탈취하여 난동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지금 光州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않고 … 선량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난폭한 폭도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 꼭 계실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비어의 중심에는 호남 사람들이 지역감정, 피해의식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 ‘경상도’라는 문구를 반복 삽입하였다.³⁹⁾ 국가는 곧이어 광주 소요의 또 다른 이유로 북한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광주의 소요는 결국 국가의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의 오판을 불러와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게 할지 모른다는 쪽으로 확대된다.⁴⁰⁾ 오로지 군부에 의해 검열되고 철저히 왜곡된 상태로 앵무새처럼 같은 내용을 읊조리는 언론에만 노출되는 국민들은 군부의 담론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⁴¹⁾

39) “계엄사령부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光州지역 소요가 악화돼 극심한 난동 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 및 강패 등 현실불만 세력이 대거 光州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린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에 유포된 전혀 근거 없는 악성의 각종 유언비어 유형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에 와서 남자고 여자고 닥치는 대로 밟아죽이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난다. … ▲진압군인들은 경상도출신만 골라서 보냈다…”(『매일경제신문』 1980년 5월 21일 <光州 소요사건 해결책 강구>).

40) “美 정부는 22일 현 한국사태를 악용하려는 어떠한 외부기도에 대해서도 韓·美 안보조약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성명은 직접 복괴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외부세력’이 복괴를 의미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경향신문』 1980년 5월 23일 <光州事態惡用 어떤 企圖도 不容>).

“北韓의 平壤방송은 21일 오후부터 일체의 일반 프로방송을 중단, 光州지역 사태만을 연속 방송하고 있다고…”(『동아일보』 1980년 5월 23일 <일반프로中斷 光州事態 보도 平壤放送>).

“정부대변인 李光杓 문공장관은 26일 북한공산집단의 최근 책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 ‘북한공산집단은 최근 大韓民國에 대하여 허위모략선전과 선동을 격화, 우리 사회의 내부혼란 조성과 국가전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발악적인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 李 장관은 ‘北韓공산집단이 최근의 우리 국내사태를 그들의 적화기도를 위한 기회로 악용하기 위해 5.25 平壤시민군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光州지역의 소요를 공공연히 지지선동하는데 광분하고 있으며 勞務관계 등 사회 각분야에서의 대립을 조장, 大衆봉기를 통한 폭력혁명을 계속 책동하고 있다’고 말하고…”(『매일경제신문』 1980년 5월 26일 <北傀는 挑發책동 중지하라 僞裝平和 내세워 赤化노력>).

41) 1980년 광주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송정민(「광주민중항쟁에서의 언론의 선택과 역할」,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5·18 언론 보도의 행태, 1980년에서 1997년까지」,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과 조재구(「5·18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논문, 1993)의 논문 참조

5.18은 특히 그 용어를 두고 치열한 담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⁴²⁾ 처음 국가에 의해 광주 5.18에 찍힌 낙인은 ‘광주사태’였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련의 폭력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진압’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담론에 맞서 등장한 5.18 용어는 ‘광주항쟁’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광주항쟁’이라는 용어를 소위 불순한 좌경용공세력들이나 내뱉을 만한 말이며 그들이 뿌리는 불온유인물이나 등장하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사용 해선 안 될 이름으로 만들었다.⁴³⁾ 게다가 북한과의 연결성이 강하게 의심된 다며 ‘빨갱이’ 아젠다까지 선점해 버렸다.⁴⁴⁾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낸 호남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은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대학사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 영역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되고 이후로도 꾸준히 유지되었다.⁴⁵⁾ 호남에 대한 소외 혹은 배제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42) 5·18에 대한 역사 서술, 용어의 변천 등에 관해서는 이용기(『5·18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천』,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의 논문 참조

43) “민중의 피의 선언인 광주항쟁마저 이를 주도할 담당세력 즉 조직된 민중역량이 없어 실패하고 말았다. …”(『경향신문』 1980년 12월 15일 <<不穩油印物>의 내용, <파쇼지배集團>등 극렬 左傾口號…自由民主主義 자체를 否定>)

44) “제1공영호어부들이 폭로한 세뇌교육 및 공작지령내용을 보면 북괴가 지금 얼마나 대남적화공작에 血眼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송환 후의 공작지령 가운데는 전화번호부에서 각계저명인사들을 골라 북괴선전책자 및 녹음테이프 등을 소포로 우송하되 이 경우엔 반드시 「金日成주체사상연구소남조선위원회 文獻발송부장 金光珍」 명의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 있다. 여기서 金光珍이란 架空의 이름은 소위 「공작명」으로 「全라도·光주·珍도」의 첫 글자를 딴것이라고 설명하더라는 대목도 주목거리다. 또 하나 새로운 手法으로는 가난한 고등학생들을 포섭해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되도록 全南대학교나 朝鮮대학교에 진학시켜 장차 학생시위를 主動케 하도록 지령했다는 점이다. 이는 10·26후 光州사태를 악용하여 극도의 내부혼란을 일으키려다 때를 놓친 그네들이 또 다른 騷擾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장기 布石으로 풀이된다”(『경향신문』 1981년 12월 29일 <歸還漁夫 證言서 밝혀진 北傀의 對南陰謀>).

45) 池秉文·金哲弘, 앞의 논문, 181쪽.

- 지난 봄 졸업한 光州 시내 종합대 학생들의 취업률은 전국최하위 ...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 시위경력자들을 배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대학생들의 취업난은 실력에 관계없이 극심해질 전망이다.⁴⁶⁾
- “「단지 전남이나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이 안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취업실태만 봐도 이 지역 학생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 광주직할시와 전남도청, 광주 및 목포상공회의소,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주최측은 “소외받아온 호남사람들의 하소연이 아니라 노력하는 호남인들의 모습을 직접 알려겠다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⁴⁷⁾
- 일반인들 특히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광주라는 지역은 ‘기업하기에 적당치 않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광주지역 40여개 재야단체와 연계된 이 지역 노동운동에 대해 기업인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우캐리어 최정식 총무부장은 ...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업경영이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광주지역의 노동운동이 울산이나 창원 등에 비해 결코 과격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고 보면 기업인들의 ‘광주기피’는 편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⁴⁸⁾

박정희 정권의 호남 푸대접은 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혹은 국가예산 부분에서의 불평등 형식이었다. 반면 1980년대 ‘광주사태가 일어난 땅, 과격시위만 하는 지역’이라는 광주에 대한 외부인의 부정적 시선은 위의 경우처럼 취업차별 등의 모습으로 다가오거나, 기업체의 호남지역 투자 회피의 방식으로 다가왔다.

5·18 이후 호남 배제가 심각해지자 호남에서 두 가지 흐름이 생겨났다. 하나는 5·18의 진상 규명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국가가 만든 담론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호남·호남인의 일상을 유지해 나

46) 『동아일보』 1989년 11월 13일 <기동취재 地方大 출신 반기는 企業이 없다>

47) 『동아일보』 1994년 4월 22일 <湖南 유능한 인력 취업 늘려주세요>

48) 『한겨레신문』 1989년 10월 27일 <‘예향’을 생산도시로... 하남공단 새바람>

갈까 하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었다.

이때 소위 광주·전남 지역 내의 일부 엘리트 집단에서 지역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1982년 전남지역개발협의회(이후 지개협)를 결성한 이들은 호남 내·외부에서 ‘광주’하면 저항과 과격한 시위 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호남 상징으로 예향을 선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월간 『예향』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⁴⁹⁾

예향 담론을 지개협 활동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기존 연구는 ‘5·18’과 이를 계승한 ‘민주화운동’ 혹은 ‘민중항쟁’ 담론과의 상징투쟁 과정에서 결국은 호남 일부 사람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예향이 선택되었다는 주장이다. ‘호남예향론’의 시작을 철저히 호남 내부로부터의 동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 본 것이다.

그러나 호남을 예향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지개협이 설립된 1882년 혹은 『예향』이 창간된 1884년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일단 예향이라는 용어 자체는 빈도는 낮지만 1970년대 후반 목격된다. 이때 예향이라 호명되던 지역을 살펴보면 전주·목포 같은 호남지역도 있지만 충무·통영 같은 영남지역도 함께 언급된다.⁵⁰⁾ 즉 원래 예향이라는 지역 표상은 호남의 독자적인 창조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몇몇 도시들은 예향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신들의 문화·예술적 전통의 우수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겨우 몇 차례 등장하던 ‘예향’이란 용어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1982년 이후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두환 정권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12·12쿠데타와 광주에서의 학살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정권의 정당성도 취약했으며, 간접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도 역시 약했다. 이럴 때는 국민의 관심을 광주나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5공화국의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흔히들 말하는

49) 정근식, 앞의 논문, 1996, 155~156쪽; 池秉文·金哲弘, 앞의 논문, 184~186쪽.

50) “忠武·統營은 문학분야 못지않게 음악·미술 등에도 많은 인재를 배출한 藝鄉.”(『동아일보』 1978년 6월 2일 <新 八道紀 <44>忠武·統營>)

3S(Sports, Screen, Sex)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탈정치화를 시도했으며,⁵¹⁾ 1980년대 초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1981년에는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국풍81’이라는 대규모 축제를 개최한다.⁵²⁾ 물론 ‘국풍81’을 기획한 실제 이유는 학원소요를 해결하고, 반체제적이며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 활용코자함이었다.⁵³⁾

같은 시기 내무부는 또한 전국에 ‘내고장 얼’을 찾는 운동을 실시하도록 지시 한다.

내무부는 1일 「내고장 얼」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단위로 ▲향토의 사표가 될만한 인물 ▲사적문물 ▲명소·명승 ▲유서있는 나무 ▲명물 ▲전설 등 각종자료를 수집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 이같이 찾아낸 고장의 얼과 상징은 학교·직장·새마을교육·마을교육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했다.⁵⁴⁾

전두환 정권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 해체와 도시화 촉진 때문에 향토성이 상실되고 있다면서 각 시·군마다 ‘얼’ 찾기, ‘전통 가꾸기’ 등의 책자들을 발간하여 교육용으로 널리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산업화의 흐름에서 밀려나 있던 호남지역에서도 이 지시에 따라 다양한 책자가 편찬되는데, 이때 급히 출판된 전통 관련 책자는 사실여부에 대한 고증보다는 자기 지역

51) 손정목, 「5공 정권의 3S정책」, 『도시문제』39, 2004, 423쪽;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2, 한울, 2005, 187~216쪽.

52) “全대통령은 ‘國風81’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민족고유문화 발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민족의 주체적 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81년 5월 28일 <‘國風81’現場시찰>).

53) 김지연, 「전두환 정부의 국풍81 : 권위주의 정부의 문화적 자원동원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2014, 26~29쪽.

54) 『경향신문』 1981년 4월 1일 <內務部, 마을단위 野史 등 資料수집 指示 「내고장 얼」 찾기運動 전개>

자랑 일색으로 꾸며졌다.⁵⁵⁾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 강요된 민족문화에 대한 붐 조성에 발맞춰 신문사에서 「鄉土문화」·「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경향신문)같은 고향 문화 발굴·소개 특별기획 기사를 적극적으로 신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1982년 이후 신문지상에 예향과 관련된 기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⁵⁶⁾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등장한 예향 관련 기사를 조사한 결과, 총 22개 市郡이 예향으로 불리고 있었다.⁵⁷⁾ 지역별로 보면 호남의 경우 광주(14회), 전주(8회), 목포(5회), 진도(4회), 남원(2회), 익산(이리 포함 2회), 해남·강진·구례(1회 씩) 등 9개 시군이 예향으로 불렸으며, 영남의 경우 진주만 3회 등장하고 마산·고성·하동·삼천포·거제·충무·사천·창녕 등이 각 1회씩 등장해 역시 9개 시군이 예향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였다. 산술적으로 영·호남 모두 각기 9개 시군이 예향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성이나 거제, 사천, 창녕 등은 오래된 전통 속에서 꾸준히 예향이라 불릴만한 존재였다기보다 ‘예향 중흥’⁵⁸⁾ ‘예향임을 실증해 보이도록’⁵⁹⁾ ‘예향으로 가꾸기 위해 온힘을 쏟고’⁶⁰⁾ ‘한때 예향의 맥이 끊어지는 듯’⁶¹⁾ 등 앞으로 중흥하거나 좀 더 노력해서 예향 타이틀을 확실히 얻겠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55) 정순옥, 「호남지역 대학 이외 주요 기관의 호남학 연구 성과」, 『호남학의 성과와 전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6, 543쪽.

56) 1987년까지의 기사만 검색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호남지역은 5·18의 자유로운 언급으로 인해 5·18 관련 담론이 예향담론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박구용, 「문화, 인권 그리고 광주정신」, 『민주주의와 인권』 7-1, 2007, 156쪽).

57) 신문사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두 곳을 기준으로 삼았다. 藝術의 고장이자 禮道 등의 단어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藝鄉’이라는 단어만 검색했는데, 이는 ‘예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화와 표상으로서의 대표성 때문이다.

58) 『경향신문』 1984년 4월 7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固城>

59) 『경향신문』 1984년 11월 3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巨濟>

60) 『경향신문』 1984년 12월 1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泗川>

61) 『경향신문』 1985년 1월 5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昌寧>

영·호남 이외의 곳에서는 강릉이 2회 등장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대전과 부여, 광명이 각 1회씩 언급되었다. 대전 역시 ‘선진예향으로 도약하는 단계’⁶²⁾일 뿐이고, 부여는 ‘예향으로 가꾸고’⁶³⁾ 있는 중이며, 광명은 ‘이주해온 문화예술인’을 규합해서 ‘예향으로 가꿀 수 있다’⁶⁴⁾는 청사진을 보이는 수준이었다.

기사를 살펴본 결과 호남지역은 지개협이 담론 형성 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빈도로 예향이라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남 대표 도시답게 광주와 전주는 각각 14차례와 8차례나 ‘예향 광주’·‘예향 전주’로 소개되었다. 특히 예향과 관련된 호남지역만의 특징으로 개별 시군이 아닌 廣域의 지역, 즉 전남과 전북, 그리고 南道 등이 각 1회 씩 예향으로 불리고 있다.⁶⁵⁾ 반면, 영남이나 호서 등 다른 광역 지역을 예향이라 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개개의 시군을 벗어나 호남이라는 넓은 범위를 예향이라는 상징으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점이다.

IV. 호남의 예향다움에 대한 인식 방법

여기에서는 앞서 1980년대 예향 관련 기사 중 호남을 예향으로 지칭한 기사들만 별도로 모아 살펴보면서 호남을 예향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⁶⁶⁾

62) 『경향신문』 1983년 9월 10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大田㊸>

63) 『경향신문』 1983년 6월 18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扶餘㊹>

64) 『경향신문』 1985년 10월 11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光明>

65) “스스로 藝鄕을 자부하는 全南에는 歌歷이 필요한 관소리창자도 많이 있다”(『매일경제신문』 1980년 5월 31일 <藝鄕서 사라져가는 傳統>)

“「농악경진대회」·「國樂人의 향기」 열어 藝鄕全北과시”(『동아일보』 1980년 10월 9일 <체전스케치>) 등

66) 신문 기사를 주 검토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기사들이 예향론에 대한 당위성이나 명확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단지 기사에 노출되는 그 자체가 호남 예향론에 대한 당시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에서 의미가

- ① 傳統・現代 공존하는 “藝鄉”, 오페라團에 판소리保存會도… 67)
- ② 민속예술의 寶庫이자 藝鄉인 光州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68)
- ③ 藝鄉의 도시 光州무등경기장에서 펼쳐진…69)
- ④ 南原은 불멸의 고전소설 「春香傳」과 판소리 東便制의 탕자리를 뽐내는 藝鄉70)
- ⑤ 예로부터 판소리 명창과 시인묵객들이 많이 배출된 藝鄉의 도시로 이름난 裡里시는 …71)
- ⑥ “南畫의 宗家”, 畫家 60여명을 배출, 「小痴문화제」 열어 後進키워, 文化財도 많은 “傳統의 고장”… 珍島는 수준 높은 藝鄉의 분위기를 유지…72)
- ⑦ 藝鄉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하게 개막 …73)
- ⑧ 全州는 판소리를 비롯 … 오늘날도 全州는 여전히 藝鄉이며…74)
- ⑨ 永郎의 맥 잇는 文鄉… 예향으로 일컬어 손색이 없는 고장 또한 康津이다.75)
- ⑩ 求禮는 예부터… 문예풍류의 시인묵객이 다수 배출돼 절의와 시문 예향으로도 이름난 고장…76)
- ⑪ 藝鄉의 고을로 불리는 진도에는 90평 크기의 현대식 건물로 지은 민속박물관이 있으며…77)
- ⑫ 益山은 … 뿌리깊은 藝鄉이다…「益山이야말로 숨겨진 藝鄉」…78)
- ⑬ 藝鄉 운치 살린 古風의 기와집 … 藝鄉으로 가는 길은 목부터 유별나다.79)
- ⑭ 광주를 중심으로 한 허백련의 鍊進會… 스승의 타계 이후에도 현재까지 무등산을 지키며 藝鄉을 빛내고 있다.80)

있다고 본 것이다.

- 67) 『경향신문』 1982년 10월 9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全州①>
- 68) 『경향신문』 1982년 10월 29일 <『藝鄉光州』에 펼친 民俗잔치>
- 69) 『경향신문』 1982년 11월 1일 <人間문화재大典 1일 開幕>
- 70) 『경향신문』 1982년 11월 13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南原>
- 71) 『경향신문』 1982년 11월 27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裡里>
- 72) 『경향신문』 1983년 2월 19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珍島①>
- 73) 『경향신문』 1983년 5월 21일 <少年體典 개막>
- 74) 『동아일보』 1984년 3월 21일 <「鄉土文化」오늘의 形象 ⑥「藝道」의고향 全州>
- 75) 『경향신문』 1984년 9월 15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康津>
- 76) 『동아일보』 1984년 11월 12일 <智異山의 「精氣」求禮>
- 77) 『경향신문』 1984년 12월 13일 <專門家들이 추천하는 「休息名所」 10곳>
- 78) 『경향신문』 1985년 1월 26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益山>
- 79) 『경향신문』 1985년 2월 23일 <驛 <6>全州>

- ⑮ “國立발레團員 반수가량 輩出에 자부” 창작발레로 「藝鄕」을 가꾼다.⁸¹⁾
- ⑯ 전남 木浦 문협지부는 … 藝鄕전남지방 선배문인들…⁸²⁾
- ⑰ “藝鄕의 멋”살린 儒達公園⁸³⁾
- ⑱ 한국인들이 藝鄕으로 자랑하는 光州… 全斗煥 대통령도 … 光州가 전통적으로 한국의 시인, 화가, 名唱의 產地임을 설명하면서 참으로 좋은 도시라고 칭찬…⁸⁴⁾
- ⑲ 전남 木浦 조선내화 李勳東 회장… 「藝鄕 木浦를 상징하는 탑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木浦시에 기탁하고…⁸⁵⁾
- ⑳ 藝鄕 전주의 긍지를 드높이는 전주인들…⁸⁶⁾
- ㉑ 書畫名家를 많이 배출한 藝鄕의 흥취를 만끽할 수 있다.⁸⁷⁾
- ㉒ 예향의 도시인 木浦시는…⁸⁸⁾
- ㉓ 弓洞 화랑가 … 흔히 「光州의 仁寺洞」으로 불리는 이 일대 … 「호남예술」의 메카로 藝鄕의 숨결을 간직해온다. … 예향 光州를 상징하는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이 하루 바빠 실현되기를…⁸⁹⁾
- ㉔ 全州는 거리 골목마다 모두가 예술의 향취로 가득한 藝鄕이다.⁹⁰⁾
- ㉕ 「藝鄕」으로 일컬어지는 光州의 예술인 3백명…⁹¹⁾
- ㉖ 식전(式典)행사로는 예향다움을 과시할 농악퍼레이드 등⁹²⁾
- ㉗ 광주를 藝鄕이라 일컫는 것은 걸출한 문인 名匠 名唱 명필을 술하게 배출…⁹³⁾

80) 『경향신문』 1985년 6월 8일 <畫壇裏面史>

81) 『동아일보』 1985년 7월 11일 <창작발레의 旗手 光州 嚴英子씨>

82) 『경향신문』 1986년 6월 9일 <南道문학의 脈을 찾자>

83) 『경향신문』 1986년 8월 23일 <“藝鄕의 멋”살린 儒達公園>

84) 『경향신문』 1986년 10월 1일 <民族魂이 타는 「東方의 등불」 外國人이 본 한국 文化>

85) 『경향신문』 1986년 11월 22일 <鄕人들>

86) 『경향신문』 1986년 12월 22일 <『月刊京鄕』 新年號 특집 나와>

87) 『경향신문』 1986년 12월 26일 <新正連休 오붓한 旅行을>

88) 『경향신문』 1987년 2월 18일 <刻苦의 숫돌질 … 玉工藝 3대>

89) 『경향신문』 1987년 6월 6일 <文化의 거리 <1> 光州 弓洞>

90) 『경향신문』 1987년 6월 27일 <文化의 거리 <4> 全州 慶園洞>

91) 『동아일보』 1987년 9월 29일 <「絃樂界돌풍 8인의 주역들」…卷末엔 音大입시 과제곡>

92) 『동아일보』 1987년 10월 9일 <體典 34개종목 2萬명 참가>

앞의 기사는 각각의 지역이 왜 예향인지에 대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란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화·판소리·음악·현대미술·문학·동인지·축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인들 이런 것 몇 가지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은 것이다. 또한 어느 한 지역이 유별나게 뛰어나거나, 한국에서도 유독 호남만이 지니는 특징이라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좀 더 예향답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이었을까?

㉓ 工藝로 外貨버는 “藝術체질”, 어린이도 書畫 수집, 盆栽·壽石 모르면 “非海南人”, 손님 오면 으레 傳統茶 대접. … 3대 화가가 주축으로 펼친 海南尹氏 문화. 그리고 두륜산 大興寺를 정점으로 한 불교문화 … 海南은 역시 「藝鄉」 중의 「藝鄉」임을 알 수 있다.⁹⁴⁾

㉔ 墨香 그윽한 「藝鄉」 珍島 … 서울에서 가정부를 하던 진도출신의 한 부녀가 한 달 수고비로 얼마를 줄까하고 묻는 주인에게 “돈은 무슨 돈입니까. 주인 양반 글씨나 한 폭 써주세요” 했다면 이야기는 진도사람들이 얼마나 詩書畫의 풍류에 젖은 생활을 해오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듯 珍島읍내 집집마다 어지간하면 그림이나 글씨 한 폭쯤은 빈 벽에 걸려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진도읍내 처음 들른 음식점 안벽에는 더 이상 액자를 걸 수 없을 만큼 한국화와 글씨가 8점이나 걸려 있었고 한 다방에는 1백호 이상 되는 대형 한국화 등이 6점 어떤 약국에는 2점 등 어디서나 그림과 글씨가 흔하게 눈에 띈다.⁹⁵⁾

㉔에서는 어린이마저도 자신의 돈을 아껴 서화를 수집하는 곳이 바로 예향 해남이라 말하고 있다. 게다가 ㉔에서는 서울에서 일하던 진도 출신 식모가 수고비 대신 주인의 ‘글씨 한 폭’을 요구했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돈이 없어도 한 폭의 작품을 더 사랑하고 예술을 더 사랑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 전국적으

93) 『경향신문』 1987년 10월 13일 <새빛體典>

94) 『경향신문』 1982년 12월 4일 <鄉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海南①>

95) 『동아일보』 1986년 3월 6일 <墨香 그윽한 「藝鄉」 珍島>

로 널리 퍼져갔다.

또한 호남의 남다른 藝術愛와 예술 전시 공간의 유별남도 예향 이미지 구축에 한 몫 하였다.

- ③⑩ 全州 시내의 다방들은 아름다운 미술작품으로 꾸며졌다. 웬만한 가정이면 한두 폭의 그림이 걸려있다. 그래서 全州는 콩나물비빔밥과 함께 藝鄕으로 이름이 높다.⁹⁶⁾
- ③⑪ 藝術眼目 높은 멋과 風流, 初・中・高 揮毫대회 매년 盛況, 接客業所마다 簇子・東洋畫, 한때는 茶房作品展도 유행 … 全州가 명실상부한 藝鄕으로 자리 잡을 날을 기대…⁹⁷⁾
- ③⑫ “해변文壇”, 同人誌등 創作활발, 다채로운 藝術祭 보름동안, 다방마다 그림・壽石이 가득 … 木浦는 「藝鄕」「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⁹⁸⁾
- ③⑬ 無等山의 정기가 문화를 빚고 榮山江의 젓줄이 예술을 살찌운다는 남녘의 「藝鄕」 光州 … 다방 등 업소마다 글씨・그림이 벽을 메우고 누구든 판소리 한마당 육자배기 한 소절쯤은 부른다. 어찌면 光州 사람은 모두가 예술인일 지도 모른다.⁹⁹⁾
- ③⑭ 수많은 판소리 명창과 書畫家 문인들을 배출해낸 全北. 특히 全州와 南原은 藝鄕을 꼽힌다. 웬만한 여염집이나 사무실 다방 음식점 등 어디든 서화 한 두 폭쯤은 어김없이 걸어두는 여유와 멋…¹⁰⁰⁾
- ③⑮ 産業化로 새 옷 입은 전통 藝鄕. 都心再編 한창 … 일반가정집은 물론 다방이나 술집 어느 곳을 가도 서화 한두 점 정도는 걸려있지 않은 곳이 없고 南道 판소리의 진수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光州다.¹⁰¹⁾
- ③⑯ 광주는 「예향이다」, 「맛의 고향이다」는 말이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부럽더군요. 허름한 접객업소에도 훌륭한 그림과 글이 몇 점씩은 꼭 붙어있고…¹⁰²⁾

96) 『동아일보』 1981년 5월 2일 <藝術의 소질은 어릴 때 찾자>

97) 『경향신문』 1982년 10월 16일 <鄕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全州①>

98) 『경향신문』 1983년 1월 22일 <鄕脈 고장文化의 現場을 찾아 木浦①>

99) 『동아일보』 1984년 3월 6일 <「鄕土文化」오늘의 形象 ③멋과 風流의 「藝鄕」 光州>

100) 『동아일보』 1984년 8월 15일 <全州・南原 드높은 「藝鄕공지」>

101) 『경향신문』 1986년 11월 3일 <韓國新圖 <1>光州직할시>

102) 『경향신문』 1987년 10월 19일 <“新記錄 풍작. 內實 아쉬웠다”>

호남의 예향스러움은 남종화 때문도 판소리 때문도 아니었다. 예술작품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방’과 ‘접객업소’, ‘여염집’, ‘식당’ 등에 걸려 있는 족자나 회화, 서화 작품들 그리고 다방 전시회의 유행 같은 부분이 이 지역을 예향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타 지역과 대비되어 호남을 예향답게 만든 가장 독특함은 무엇이었을까? 호남과 예술을 연결시키는 주된 인식 포인트는 ‘가진 것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 소비되는 ‘예술’이었다. 예술을 즐기는 계층이란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화 수집에 자기 용돈을 쓰는 어린이와 월급 대신 글씨를 받겠다는 식모는 분명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다방 전시회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전문 전시 공간이 부족해 다방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흔한 일로, 호남만의 독특한 문화도 아니었다.¹⁰³⁾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변변한 미술관 하나 없어¹⁰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다방 전시를 마치 예향 도시가 갖춰야 할 중요 지표인 마냥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호남에 ‘예향’ 이미지가 덧씌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는 예술적 전통과 무관한 정치적 판단도 엄연히 존재하였다. 5·18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두환 정권을 비롯하여, 5·18 같은 非경제적이고 과격한 이미지가 호남 지역에 대한 경제 투자를 꺼리는 동인으로 작동한다고 믿는 지개협 등이 함께 나섰다. 지개협은 때로는 국가 권력의 5월 단체 분열 정책에 적극

103) “釜山미술의 요람은 해방 후 30년 동안 꾸준히 전시장으로 애용되어온 다방이라 할 수 있다. 광복 30년 동안 부산서 열린 미술전시회는 줄잡아 1천1백47회(75년 8월 현재), 이중 31.7%에 해당하는 3백65회의 전시회가 다방에서 열렸다는 것이다. … 그러나 木馬·名門·공간·銀河, 피카소 등 2~3년래 유행을 보던 화랑다실은 현재 木馬·名門 화랑다실 정도가 남았다. 코피 파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림을 팔고 사는 징검다리 구실에는 실패하고 본격적인 화랑이 늘어나면서 퇴색…”(『경향신문』 1976년 6월 16일 <文化의 香薰따라 千里길 (1) 釜山 자리잡는 畫廊街>)

104) “藝鄉 光州에 미술관하나 없으니…”『동아일보』 1985년 7월 13일 <代를 잇는 畫脈 吳承潤씨>

동조하였고, 때로는 광주일보사의 월간지 『예향』과 지개협에서 자체 발행한 『전남개발』 등의 기사를 통해 호남이 얼마나 예향인지를 적극 홍보하는데 앞장섰다.¹⁰⁵⁾

물론 호남의 지식인들은 예향 담론 속에 담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꿰뚫고 있었다. 호남 사람들이 허구의 이론 속에서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 다거나,¹⁰⁶⁾ 정치·경제적 패배감을 ‘예향’이란 이름 속에 감추려는 것 이외에 5·18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⁷⁾

결과적으로 호남 내·외부의 자타가 공히 호남의 새로운 이미지로 내세웠던 ‘예향’은 이 지역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적이었다. 비록 호남 사람들에게 ‘예향론’은 썩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애물단지였고, 선택지가 많지 않은 정답을 고르는 것과 같았다. 그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와 상관없이 일단 ‘폭도’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예향’과 ‘예향인’이라는 호명이

105) 지개협은 광주가 5·18로 인한 ‘민주화의 성지’로 이미지화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1982년 5월 18일 광주 망월묘역에서 최초의 5·18 공개 추모제가 예정되자, 아직 창립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지개협이 ‘전남도민단합대회’란 급조된 행사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무등경기장에 동원해 추모제를 방해하였다. 또한 학살의 증거물이자 민주성지화 되어가는 망월묘역 해체를 위해 금전을 통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분묘 이장을 강요하고, 5월 단체들을 분열 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정근식, 앞의 논문, 1996, 155~156쪽; 池秉文·金哲弘, 앞의 논문, 184~186쪽).

106) “가난한 선비가 밥을 굶곤 눈을 말뚝거리고 앉아 있는 가족들에게 선비의 청빈성을 내세워 굶주림을 정당화시켰듯이 ... 소외와 허기 속에서 마치 자기들이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예술의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환각상태에 빠져 ...”(리명환, 「집단취면에 걸린 「광주=예향」 등식」, 『사회문화리뷰』 10월, 1995, 103쪽; 鄭永文, 「光州「五月行事」의 社會的 起源-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1999, 123~124쪽 재인용).

107) “政治·經濟 발전 뒤진 「藝鄕」 달갑잖아요” ... 文化도시 光州를 「藝鄕」으로 일컫는데 현실적으로 달갑지 않게 느낀다는 宋씨는 ... 政治·經濟적인 발전에서 벗어난 현실적 패배감 같은 것을 「藝鄕」이라는 이름으로 위안을 찾으려는 자기인식 ... 光州사태의 해결 또는 정리는 역사적인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고 강조... (『동아일보』 1985년 7월 13일 <光州 民衆문학 支柱 小說家 宋基淑씨>)

그래도 더 낮기 때문이었다.

V. 맺음말

해방 이후부터 끊임없이 외부인의 부정담론과 거기에 대한 대응담론의 경쟁이 치열했던 호남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또다시 담론 경쟁의 장이 되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이후 또다시 등장해 호남을 뒤흔들어 놓은 ‘빨갱이’ ‘폭도’ 같은 단어는 호남과 그 내부 사람들의 생활 및 경제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힘을 발휘하였다. 1960년대 호남 비하와 호남 차별 같은 부정적 시선에 대한 대응으로 ‘호남문화론’을 개발했듯이, 1980년대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호남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예향’이었다.

호남을 예술·문화와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은 예향 담론 형성 이후로도 몇 차례 지속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광주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예향을 현실적으로 구체화 하였다.¹⁰⁸⁾ 하지만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화 항쟁의 물결 속에서 ‘예향’ 담론은 5·18과 민주화라는 저항 담론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¹⁰⁹⁾ 이후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는 예술과 문화를 한 축으로 하는 예향 담론과 5·18 및 민주화를 한 축으로 하는 저항담론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 돌입한다.

그리고 또 한 번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호남이 예술·문화의 담론을 급작스레 떠안는 상황이 재연되는데, 바로 1995년 광주비엔날레 문제다. 김영삼 정권은 1994년 12월 갑자기 ‘광주비엔날레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광주비엔날레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¹¹⁰⁾ 그러

108) 박해광·송유미,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 광주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3, 2007, 92~93쪽

109) 박구용, 앞의 논문, 156쪽

110) “88 서울올림픽 국제미술제를 넘어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미술 행사가 광주시에서 추진돼 미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미술의 해’와 광복 50주년

나 이 결정은 호남의 예술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 사서 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였다. 1994년 10월 말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노태우 등 12·12와 5·18 반란혐의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문민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고 호남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역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급조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지역 예술가들은 비엔날레 자체에 대해 반발하기에 이르렀고, 1995년 제1회 비엔날레가 열리는 그 시간, 비엔날레 전시관이 아닌 망월동에 1천2백 개의 만장과 숯대, 상여 등을 설치하여 광주 하늘을 뒤덮었다.¹¹¹⁾ 예술로 접근하는 예향론이 아닌 정치적 예향론에 대한 거부였다.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두고 분열이 벌어지던 1995년, 김영삼 정권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발표와 함께 5·18을 국가기념일로 만들고 정치적 복권과 함께 기념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제 ‘예향’은 ‘의향’에 호남 대표 담론의 자리를 넘겨주어야 했다.¹¹²⁾

그러나 호남의 상징 투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향 담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21세기 호남의 빅이슈로 떠올랐다. 이제 호남, 그 속에서 가장 중심 도시라고 할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

을 맞아 1백억원 예산을 들여 전세계 50개국에서 1백여명의 작가가 참가하는 제1회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지난 11월 마련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미술계 인사들과 광주지역 각계대표 35명을 모아 광주비엔날레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예향으로 불리는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문화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이 행사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부분은 1백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다. 이는 88올림픽 국제미술제 예산 90억원을 넘어서는, 우리 미술 행사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이다. ... 민예총 광주지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겨레신문』 1994년 12월 13일 <광주서 사상최대 국제미술제>).

111) 박시중, 「광주비엔날레, 다시 태어난다」, 『사회평론 길』96-5, 1996, 194~197쪽

112) 조상현, 앞의 논문, 2009, 269~277쪽

다. 그런데 문화전당과 관련하여 아직도 제대로 풀지 못한 고리가 하나 있으니 바로 구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의 활용 문제이다. 5·18의 상흔을 가장 온전히 담고 있는 구 도청 건물의 활용을 둘러싼 잡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예향과 의향 담론, 문화와 저항담론의 치열한 경쟁의 축소판이 아닌가 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2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김득중,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역사연구』7, 2006.

김병인, 「지역전통의 정립과 변용」,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경인문화사, 2004.

김지연, 「전두환 정부의 국풍81 : 권위주의 정부의 문화적 자원동원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2014.

김희송, 「5·18항쟁 시기 군부의 5·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13, 2013.

리명환, 「집단취면에 걸린 ‘광주=예향’ 등식」, 『사회문화리뷰』10월, 1995.

문순덕,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濟州島研究』37, 2012.

박구용, 「문화, 인권 그리고 광주정신」, 『민주주의와 인권』7-1, 2007.

박미선, 「‘호남문화론’에 대한 제 논의와 전망」, 『호남문화연구』31, 2002.

박성운, 「도시 생활의 적응 기제로서의 향우회에 관한 연구 -재경고흥군향우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1.

박시중, 「광주비엔날레, 다시 태어난다」, 『사회평론 길』96-5, 1996.

박영정, 「광주, 전남지역의 마당굿운동에 대하여」, 『전라도 마당굿 대본집』, 들불, 1989.

박해광·송유미,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 광주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3, 2007.

손정목, 「5공 정권의 3S정책」, 『도시문제』39, 2004.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2, 한울, 2005.

송정민, 「5·18 언론 보도의 행태, 1980년에서 1997년까지」,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송정민,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언론의 선택과 역할」,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 송중현, 「지역방송의 사투리 사용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11-3, 2011.
- 尹貞薰, 「人口移動을 통한 우리나라의 都市化 過程」, 『社會學研究』10, 1972.
- 이강래, 「호남학의 지형과 지향」, 『호남학의 성과와 전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6.
- 이용기, 「5·18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천」,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 이정태, 「TV 드라마 사투리 사용실태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5.
- 在京全南郷友會, 「本會沿革概要」, 『'94在京全南郷友會誌』, 1994.
- 전남대학교 부설 호남문화연구소, 「회보 - 전남대학교 부설 호남문화연구소 소개」, 『호남문화연구』1, 1963.
- 정근식, 「지역 정체성, 신분투쟁 그리고 전쟁기억」,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경인문화사, 2004.
- 정근식,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30, 1996.
- 鄭文永, 「光州 ‘五月 行事’의 社會的 起源 -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1999.
- 정순옥, 「호남지역 대학 이외 주요 기관의 호남학 연구 성과」, 『호남학의 성과와 전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6.
- 鄭鉉錫, 「TV드라마에 나타난 지방인 묘사에 관한 연구 -KBS 2TV ‘당추동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90.
- 정형호, 「20세기 서울 지역 도시공동체의 특징과 변모 양상」, 『실천민속학연구』17, 2011.
- 조상현, 「1980년대 이전 호남항우회의 성격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15-2, 2012.
- 조상현, 「전라도 별칭 ‘호남’(湖南)의 연원(淵源)」, 『韓國思想과 文化』91, 2018.
- 조상현, 「호남 상징으로서 義鄉論의 전개와 추이」, 『韓國思想과 文化』50, 2009.
- 조재구, 「5·18광주민중추화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논문, 1993.
- 池秉文·金哲弘, 「지방사회운동으로서의 광주 5월 운동」, 『韓國政治學會報』34-4, 2001.
- 최대우·백형주, 「대학연구소」, 『호남학의 성과와 전망』,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

단, 2006.

최유준, 「대중음악과 호남 사투리의 감성 정치」, 『호남문화연구』49, 2011.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경인문화사, 2000.

한창기, 「전라남도의 예향됨」, 『예향』 8월호, 1986.

황홍섭, 「한국 도시 상징의 분석 -시가, 시조, 시목, 시화를 중심으로」, 『한국지
역지리학회지』3-2, 1997.

Abstract

A study on Common Recognition of Honam as Ye-Hyang

Cho, Sang-hyun

This study is purposed to answer the question, ‘What makes Honam Ye-Hyang?’ which is one of three Hyangs, local symbolic images representing Honam. Since May 18 in 1980, Honam has been explained as the words such as a Red (meaning a commie) or demonstration. The more May 18 was mentioned, the more uncomfortable two groups felt; one was some local enterprisers who thought such image of Honam had a bad influence on local economy, and the other was Jeon Do-hwan regime.

Around 1982, there appeared a movement to define Honam as Ye-Hyang meaning the hometown of art. Why was Honam called Ye-Hyang? They provided a few cultural art fields such as Namjonghwa painting and Pansori as the evidence as Ye-hyang, but it seems to set up something unnatural. In the recognition of calling Honam as Ye-hyang at that time, we can encounter the people and places that never match art. Paradoxically, what was used to prove Honam as Ye-hyang was kids and housekeepers, and the places such as tearooms and hospitality businesses where art was consumed cheap and superficial. Thus, it is absurd that the region where artistic works

are displayed in tearooms because there was no gallery to exhibit was evaluated as artistic, which implies that the view of 'Honam-Yehyang' was a political product, not a historical and cultural necessity or justification.

Key words

Honam image, Honam-Yehyang view, Yehyang (hometown of art), Euihyang (Hometown of Justice), May 18, 1980s, Local symbolic image

